

01 교회소식

교회 개척 29주년 맞아

현실을 보지 않는 '믿음'으로 행군하여 글로벌 대형 교회로 성장하기까지 만민중앙교회의 역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살아 계신 증거다.

02 생명의 말씀

일곱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통해 오늘날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외침을 듣는다.

03 기획특집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교훈(2)

두아디라 교회는 영적 성장을 못하고 어린이가 같은 신앙에 머물러 구원의 약속은 받았으나 천국 상급에 대한 약속은 받지 못했다.

04 권능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대단합니다"

지난 6월 초 특별 은사집회 시 유병암을 치료받은 한인옥 집사와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이스라엘 선교 사역을 통해 선교사역에 영적인 힘을 받은 이스라엘 토시 목사의 간증.

만민뉴스

제491호 2011년 7월 24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보배 중의 보배는 믿음, 무에서 유를 이루다

단돈 7천 원으로 시작... 교회 개척 29년 만에 9천여 지·협력교회와 함께



만민중앙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목자와 성도가 하나 되어 말씀에 힘써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며 전 세계 영혼을 섬기는 교회로 축복하셨다. 1982년 개척 후 교회 기반을 다지며 급성장, 1990년대부터는 활발한 교계 활동을 펼쳐 미국 '크리스천월드' 지에 세계 50대 교회로 선정됐다. 2000년 이후는 해외에서 대형 치료성회를 개최하며 세계선교에 주력했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해외 9천여 개 지·협력교회를 두고 GCN 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 말씀과 권능을 전하고 있다(사진 아래 왼쪽부터 개척예배, 1992 세계성령화대성회, 2002 인도 연합대성회, 2006 미국 연합대성회, 2009년 이스라엘 연합성회, 2010 창립 28주년 축하행사 및 GCN개국 5주년 행사).

급속한 성장을 거듭한 우리 교회가 개척 29주년을 맞는다. 1982년 7월 25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10평 남짓한 성전에서 13명이 개척예배를 드렸다. 신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재록 전도사는 이날 '보배 중의 보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오직 순종함으로 믿음의 행군을 한 결과, 우리 교회는 현재 9천여 개의 지교회와 협력교회가 있으며 세계 교구화를 더

창대히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 7년 병고 끝에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 모든 질병을 단번에 치료받은 이재록 목사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교회 개척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므로 일가친척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매일 불같이 기도하니 성전을 비롯해 강대상, 전화기, 피아노, 십자가 종탑 등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셨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와 같이 이 목사는 기사와 표적, 권능을 행하며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 성령의 감동 속에 깨우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성도들의 믿음이 신속히 자라나 기도와 전도에 힘썼으며 날마다 몰려드는 사람들로 부흥에 부흥을 거듭했다. 1990년대에는 민족복음화에 진력했고, 2000년부터는 사역의 지경을 넓혀 인도, 미국, 이스라엘 등 해

외 여러 나라에서 수만, 수십만, 수백 만 명이 운집한 대형 성회를 개최해 활발히 복음을 전파했다. 뿐만 아니라 다국어 신앙서적과 20개 언어로 발간된 교회 소식지 '만민뉴스', GCN(세계기독교방송네트워크), WCDN(세계기독교의사네트워크)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권능을 전하고 있다. 이 목사는 요즘도 국내외로 파

송되는 주의 종들에게 이같이 당부하곤 한다. "무(無)에서 시작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하나 응답받으세요. 주의 종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불같이 기도해 신속히 성결되고 권능을 받으세요. 영의 마음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고 교회가 자동 부흥합니다. 또한 내 가족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 떼들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기획 특집 **일곱교회**

- 에베소 교회
- 서머나 교회
- 버가모 교회
- **두아디라 교회**
- 사데 교회
- 빌라델비아 교회
- 라오디게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교훈 (2)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21~29)



당회장 이재록 목사

-
- 예수교대한연합성결회 총회장
- (사)기독교 세계부흥선교협회의 상임총재
- (사)국회사랑 구국기도 총연합회 공동총재
- 세계 기독교방송 네트워크(GCN) 이사장
- 세계 기독교사 네트워크(WCDN) 이사장
- 만민국제신학교(MIS) 이사장
- 연합성결신학교 이사장
- 목회학 박사, 명예신학 박사
-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
-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등에 방송 설교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문화일보, 한국경제신문, 코리아헤럴드, 시사뉴스, 크리스찬신문 등에 신앙칼럼 정기 게재
- 미국 뉴욕, 워싱턴, 볼티모어, 메릴랜드, LA, 하와이, 일본,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페루, 러시아, 독일,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등에서 연합대성회 인도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을 책망하시며 회개해야 할 것을 알려 주십니다. 이는 오늘날 형식적인 신앙에 치우쳐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1.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즉시 징계가 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자의 말씀이나,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돌아길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이 강박하여 돌아키지 않으면 사단의 송사에 의해 징계가 임합니다. 애굽에 열 재앙이 임한 것처럼 처음부터 혹독한 징계가 아니라 가벼운 징계로부터 시작되어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무엇보다 먼저 성령께서 탄식하시므로 마음에서 평안이 사라지고 곤고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 깨우칠 수 있는 신호를 보내 주시며, 그래도 깨우치지 못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몸이 상하고, 가족이나 직장, 사업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재산의 손실을 입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진리에서 벗어날 때에는 징계하여 돌아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잘못을 했는데도 징계가 없다면 이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니 더욱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히 12:8).

따라서 자신의 잘못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감사하며 신속히 돌아켜야 합니다. 그럴 때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환난과 재앙에서 건져 주십니다.

2.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일반적으로 침상은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포근함을 주지만, 여기서는 이세벨이 가증한 일을 하는 장소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도 돌아키지 않는 사람들을 큰 시험 환난 가운데 던지신다는 뜻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에게 곧바로 재앙이 임하지 않으면 여전히 편안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간혹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저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그냥 두시는가?”라고 불평하

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잠시 동안 악인이 행통하게 보이고 침상에 누운 것처럼 편안하게 보인다 해도 정해진 공의의 선을 넘으면 순식간에 심판이 임합니다(시 37:1~10). 살아 있는 동안에는 심판이 임하지 않고 행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사망의 지옥불에 던져지므로 결코 행통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칫 이세벨의 침상이 좋아 보이고 편안해 보이므로 미혹되어 그 안에서 함께 범죠했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큰 환난이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최후의 징계를 의미하고, 살아서 주님의 강림의 때를 맞는 사람에게 7년 대환난에 떨어질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3.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너희 각 사람의 행위로 값아 주리라

이세벨과 같이 우상 숭배하도록 미혹하거나 미혹을 받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공의 가운데 심판하십니다. ‘그의 자녀를 죽인다’는 것은 공의 가운데 임할 징계나 재앙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꼭 자녀에게 임한다는 뜻은 아니며 남편이나 아내 등 다른 가족에게 재앙이 임할 수 있고, 혹은 생활고나 질병 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함은 물론, 마음과 뜻과 생각까지도 살피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물론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을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꿈을 통해 알려 주실 때도 있고, 혹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깨우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가지고 있다면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언제나 느낄 수 있습니다(잠 15:3 시 139:1~4).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언행뿐 아니라 생각과 마음, 깊은 중심까지 밝히 아십니다. 순간에 감정을 품고 바라보는 눈동자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으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한 작은 선행도 심판 날에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벧전 3:10~12).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이세벨의 교훈을 좇아 범죠했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4.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번지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 (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 (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팀 (02)818-7391~3

|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 |
|-------------------------|----------------------------|
| 주일 대예배 | 1부 10:00 AM 2부 11:30 AM |
| 주일 빛과소금순교회 예배 | 9:00 PM |
|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순교회 예배 | 11:00 PM |
| 주일 저녁예배 | 3:00 PM |
| 금요일예배 | 11:00 PM |
| 수요일예배 | 7:00 PM |
| 화요일예배 [대학·가난·청년·배울·미리애] | 8:00 PM |
|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 9:00 PM |
|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 4:00 PM |
| 토요일예배 [아동부] | 3:00 PM |
| 다니엘철야기도회 | 9:00 PM (매일, 단, 공휴일은 제외) |
| 새벽예배 |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대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두아디라 교화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자란, 아직은 말씀대로 지켜 행할 만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초신자를 의미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말씀대로 지켜 행할 만한 믿음은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들을 향해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그것이 사단의 역사를 받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법을 모르면 뜻하지 않게 법을 어겨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여서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자칫 미혹되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벌을 받습니다. 물론 같은 죄라도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형벌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초신자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과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죄의 경중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 남을 판단하고 수군수군하는 것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행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곧 스스로 재판자가 되는 큰 죄입니다(약 4:11)을 알면서도 그랬다면 그만큼 더 큰 사단의 송사거리가 됩니다. 이와 같이 영적 세계도 깊이가 다 다르며 그것에 따른 사단의 역사도 달라집니다. 이러한 영의 세계를 초신자는 깊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5.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린 신앙의 단계에서 아직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도 사랑하며 구습을 버리지 못한 채 사는 것이지요.

사람의 성장단계에 비유하면 아직 젖이나 죽을 먹는 어린아이의 믿음에 불과하니 이들

을 향해 주님께서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하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말씀하셨지요(계 2:25). 이는 그들에게 성결하라든가 권능을 받으라는 등의 깊은 영적인 차원을 요구하기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만이라도 굳게 잡아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여 현 상태만 유지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자칫 안일한 생각이 틈타 '이 정도면 됐으니 좀 쉬어야지' 했다가는 마치 사공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노 젓는 일을 멈추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세찬 물결에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지요. 더욱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오늘날에는 엄청난 퇴보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세월을 아껴 뜨겁고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6.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소유한 두아디라 교화에 권면하신 후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세상 주관자인 원수 마귀 사단을 이기는 것으로서,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좇아 행함으로 어둠의 일들을 벗어 버리고 빛 가운데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내 일'이란 주님의 일을 말합니다. 주님의 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기쁘게 해 드리며 영혼을 구원하는 등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뜻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곧 이 땅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원수 마귀 사단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첫사람 아담에게 천하 만국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창 1:28). 그런데 아담이 사단에게 미혹되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 권세가 원수 마귀 사단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눅 4:5-6). 그러나 원수 마귀 사단은 하나

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이 권세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여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원수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받습니다(요 1:12). 그러나 이때부터는 원수 마귀 사단이 주관하는 어둠의 세상과 짝하여 살지 말고 빛에 속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기는 것이며 주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 사단은 어찌하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 살지 못하도록 훼방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방해 요인을 만드는가 하면, 의심을 가져다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풍조를 좇아 살아가도록 미혹하지요.

이러한 원수 마귀 사단의 방해를 물리치려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합니다. 악을 버림으로 성결의 차원에 이르면 악한 자가 만질 수도 없으며(요일 5:18)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사는 만큼 더 큰 권세와 능력이 임하여 세상 주관자인 원수 마귀 사단도 능히 지배할 수 있습니다.

7.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어둠의 주관자와의 싸움에서 패하는 사람은 여전히 마귀 권세 아래 삽니다. 특히 니골라 당이나 발람, 이세벨과 같은 사람의 행위를 좇으면 원수 마귀 사단의 종노릇하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철장'은 쇠막대기나 쇠 지팡이를, '질그릇'은 흙으로 지은 사람을 의미하지요.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하신다'는 것은 곧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이며 참으로 존귀한 존재였지만, 죄로 인해 영이 죽어 원수 마귀의 자녀가 됨으로써 가치 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질그릇을 깨뜨린다는 것은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치 못하여 여전히 원수 마귀 사단에게 속한 사람은 결국 버림 받는다는 뜻입니다.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 날에 말씀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요 12:48).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둬서 이기고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사람은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계 2:27)는 말씀처럼 원수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영적인 빛의 권세를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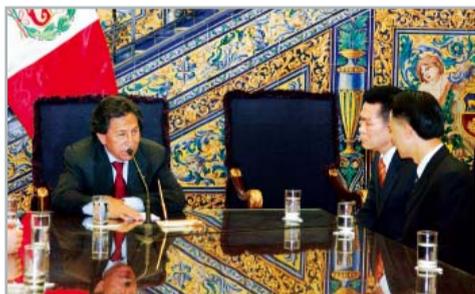
새벽 별은 가장 밝게 빛나는 별로서 바로 주님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새벽 별을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고 인정하시는 것처럼, 말씀대로 행하여 원수 마귀 사단을 이기는 사람을 아들로 인정하며 사랑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부지런히 말씀을 지켜 행하면 주님의 성품을 닮아 영의 사람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과 같이 거룩하고 온전해지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여 원수 마귀 사단에게 지는 사람은 새벽 별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도,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영적인 성장을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구원의 약속은 받았지만 천국 상급에 대한 약속은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엡 4:13) 하신 말씀처럼 신앙이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남미 대륙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한 이재록 목사 초청 페루 연합대성회



◀ 알레한드로 툴레도 페루 전 대통령은 강사 이재록 목사를 대통령령으로 초청하여 환담을 나눴다.

▶ 2004년 페루 리마 캄보 데 마르데 공원에서 열린 '이재록 목사 초청 페루 연합대성회'. 가톨릭 국가이지만 일부 백인들을 제외한 국민 대부분이 가난과 질병으로 살아가는 페루 리마에 복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50만여 명이 참석했으며, 에이즈(AIDS)를 비롯한 치료와 문제 해결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 중남미 대륙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했다.



7 July 주요프로그램

- '살아계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창조의 섭리' 당회장 이재록목사의 **창세기강해**
- '놀라운 치료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특별은사집회 1,2,3**
- 특선영화 **'왕중왕'**
- 이수진 목사의 TV설교 **'팔복'**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깊고 푸른 하늘에 수놓아진 아름다운 오로라 빛처럼 은혜와 감동의 GCN 프로그램과 함께 하세요!"

위성 및 인터넷TV 안내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
1577-2073
MANMIN TV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후 유방암을 치료받았습니다”

한인옥 집사 (대대 4교구)



유방암 2기. 하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무엇이 하나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으로 치료받은 성도들을 수없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수술해야 한다는 병원 측의 권고에도 저는 하나님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기도를 받은 뒤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암의 근원을 치료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서 통증이 다시 왔습니다. 심할 때에는 칼로 썰는 듯했습니다. 오른쪽 팔이 점점 힘을 잃어 젓가락도 사용하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

의 신앙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의 도, 열 재앙, 믿음의 분량 등 당회장님의 저서를 읽고, 사랑장,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등 말씀 테이프를 들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마음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다고 착각한 채 마음의 할례를 더더하고 마음밭을 개간하지 않은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교만, 미움, 원망, 불평, 서운함, 나를 돌아보기보다 다른 사람을 탓하던 모습, 하나님을 믿기 전 상상 숭배했던 것까지 철저히 돌아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회개할 때마다 통증이 줄어들었고 어느 순간에는 치료받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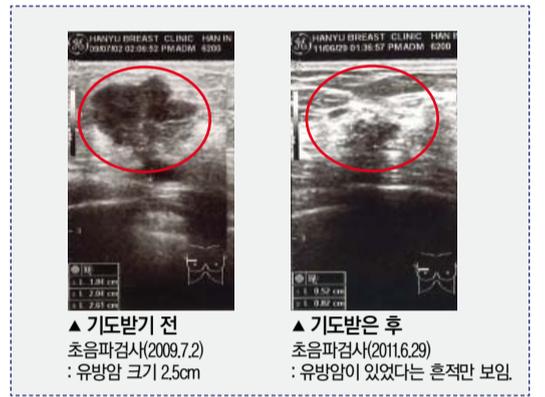
2009년 7월 세포 조직 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여전히 악성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 치료받

은 것은 아니구나’ 실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고 확신하니 감사 기도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변화되겠습니다. 빨리 변화되겠습니다.” 물밑듯 밀려오는 사랑에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더욱 제 성격의 틀까지도 깨뜨리며 주님의 선한 마음과 사랑을 닦아가고자 힘썼습니다.

어느 날 꿈에 당회장님께서 ‘치료의 빛이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소망이 생겼지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도 12년 된 혈루증을 치료받은 여인처럼 당회

장님과 악수만 해도 치료되겠다는 믿음이 왔습니다.

지난 5월, 믿음으로 약속했는데 명월이 작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어 6월 10일, 1회 특별은사집회 때 기도받은 후에는 명월이 거의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24일, 3회 특별은사집회 때 기도받은 뒤, 6월 29일 재검 결과에서는 암덩어리가 보이지 않고 다만 암이 있었다는 흔적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2007년 3월, 갑작스럽게 만져진 오른쪽 가슴의 명월과 통증. 설마 하는 마음에 대학 병원을 찾았습니다. 유방암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놀란 마음을 추스르고 한 달 후 개인전문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했는데 결과는 악성종양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지난 5월,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했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연상케 하는 특송과 성도들의 헌신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저의 영적 멘토이신 이재록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교회 방문 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토시 목사

이스라엘 성경대학에서 성경 역사를 배운 저는 1999년 이스라엘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재록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선교를 시작할 무렵인 2007년 저는 텔아비브 한 교회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예언자를 만났습

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해외에서 오신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참된 종을 만날 것입니다. 그 종은 당신의 조연자이자 영적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예언

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강하나 선교사님을 통

이재록 목사님께서 또다시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세미나를 열어주셨고 그 자리에서 치료의 역사가

깨어나셨습니다. 순간 영적 아버지를 만날 것이라던 예언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영적 아버지를 만난 후 선교 사역이 행복합니다”

물렝가 툼바 토시 목사 (이스라엘, 와보라 만민교회 담임)

해 이재록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선교 차 이스라엘에 오신 목사님을 뵙고 기도를 받고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한 예언자가 말하기를 비둘기가 제 머리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 중에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재록 목사님은 마치 자상한 아버지처럼 손을 내밀어 주셨고 저는 갈 길을 찾은 듯 목사님

그날부터 인터넷을 통해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또 천국(상하),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지옥 등 목사님의 여러 저서를 탐독해 나갔습니다. 목사님의 저서에는 영적인 비밀들이 가득했습니다. 매일 꾸준히 말씀을 읽고 기도해 나가니 믿음이 급속히 성장해 나감을 느낄 수 있었지요. 저는 주저 없이 만민의 지교회로 가입한 뒤 교회명도 ‘와보라 만민교회’로 바꿨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19:11-12)으로 제가 기도해 줄 때 많은 사람이 치료받는 것을 목도하니 선교에 한층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벽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70-8764-3000, 010-7112-3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새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382-5(3층) ☎042)527-2073, 010-7777-70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81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1-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9663-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2781-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정리 19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사량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산자거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1-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산리 965-1 ☎055)648-9107, 010-521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정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문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873-6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영암만민교회 전남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47-11 ☎061)473-2707, 011-603-7766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63-0675, 011-637-0263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71-11 ☎033)251-1144, 010-7900-2069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영동지성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5 ☎02)556-8517-8, 010-7223-2073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 3동 188-26 ☎02)995-9951, 011-1717-1217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파동 508-1 ☎031)485-9143, 019-276-10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김천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36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3330-3172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031)635-9103, 010-2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2251-3149